

# “JV 통해 中 저가공세 대응... 阿·중동 등 신시장 발굴”

(조인트벤처)

건설, 飛上 2020 전략

쌍용건설

쌍용건설이 해외사업에서 차별화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역량을 키우고 있다. 또 쌍용건설은 올해 2년 만에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국에선 총 7600여가구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반등이 예상된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신시장 발굴 통해 먹거리 확보 심도있는 교육 통해 인력강화

2년 만에 서울서 아파트 분양 전국 7600여 가구 주택 공급 시공능력평가 순위 반등 기대

적극 발굴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의 해외 수주 실적은 남다르다. 쌍용건설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1800병상, 7억4000만 달러(8000억원) 규모의 병원 공사를 진행 중이다. 병상으로 따지면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병원 공사 프로젝트로 쌍용건설은 2018년 3월 싱가포르 보건부로부터 수주했다. 공사기간은 33개월이다.

지난해 5월에는 2000억원 규모의 ‘두



쌍용건설 ‘더 플래티넘 오목천’ 조감도.

/쌍용건설

바이 윈 레지던스’ 공사, 2200억원짜리 아프리카 적도기니의 바타 국제공항 시공권도 단독 수주했으며 말레이시아에서는 약 3500억원 규모의 ‘옥슬티타워’ 공사를 단독으로 수주하는 성공했다.

중국업체의 초저가 공세에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업체와 조인트벤처(JV, 합작) 형식으로 수주를 추진하고 기술력을 더욱 향상하는 등 구체적 노력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인재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 회장은 “우리가 매일매일 특화된 시공과정에서 겪는 새로운 경험과 극복과정은 우리의 특화된 노하우이며 자산”이라며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즉각 현장에 투입 가능한 대체 불가 인력양성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건설은 2018년 국내 주택시장에 ‘더 플래티넘’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올해는 ‘더 플래티넘’ 브랜드

가 더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회장은 “국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30만호의 꾸준한 시장이 존재한다”면서 “회사 전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년 만에 서울서 아파트 분양

강점을 지닌 고난도 건축·토목분야에서 시공실적을 쌓는 것은 물론 국내 주택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쌍용건설은 올해 총 7682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일반분양은 4705가구로 ▲아파트 3527가구 ▲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363가구 ▲오피스텔 768실 ▲테라스하우스 52가구다. 지역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서울·수도권 3044가구 ▲부산 301가구 ▲대구 84가구 ▲경남 874가구 ▲전남 192가구다.

본격적인 분양은 오는 2월부터 시작된다. 2월에 공급 예정인 단지는 3곳으

로 ▲경기도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 930가구(일반분양 721가구) ▲부산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 주상복합 171가구(오피스텔 포함, 일반분양 171가구) ▲서울 쌍용 더 플래티넘 서울역 오피스텔 576실(일반분양 576실)이다.

특히 서울 분양은 약 2년만으로 ‘더 플래티넘’ 통합 브랜드 론칭 후 첫 서울 입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쌍용건설은 3월 ▲서울 송파구 쌍용 더 플래티넘 잠실 오피스텔 192실(일반분양 192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294가구(오피스텔 포함, 일반분양 294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 4월부터 공급물량이 늘어나 6월까지 공급 예정인 일반분양 가구수는 2670가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인천 주안3구역 재개발 2054가구(일반분양 1327가구) ▲경남 창원 교방1구역 재개발 1538가구(일반분양 874가구) 등 대규모 아파트공사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2분기에는 ▲경기도 광주 초월읍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총 482가구, 일반분양 130가구) ▲부산 거제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총 482가구, 일반분양 130가구) ▲전남 완도 주상복합(총 192가구, 일반분양 19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4분기에는 서울 송파구 오금아남 아파트 리모델링(총 328가구, 일반분양 29가구) 공급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했다.

/정영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앨러진 보형물’ 희귀암 우려... 반사이익 기대

株라쿨라의 종목

인공보형물 제조 |한스바이오메드|

앨러진·멘토사 등 中 시장 과점 희귀 림프종 우려에 퇴출 수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이 거론되면서 한한령이 급속히 해제되는 모습이다. 이전까지 중국 시장을 과점하고 있었던 앨러진과 멘토사(社)의 인공유방 보형물 텍스처 제품이 지난해 희귀질환(BIA-ALCL·역형성대세포림프종) 발병 가능성이 알려지며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어 한스바이오메드에 반사수혜가 기대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을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4일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난해 하반기 페이스 리프팅실(MINT)과 인체조직재(ExFuse)의 중국 판매허가를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1999년 설립된 바이오기업으로 실리콘 보형물과 인체이식용 이식재 뼈 피부 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국내 인공유방 보형물과 뼈 이식재 선두업체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리프팅실 세포 치료제까지 사업영역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주요 제품별 매출비중은 성형외과에서 기습 확대술과 재건술에 사용하는 ‘실리콘 폴리머’가 41%, ‘인체

조직재’ 29%, 페이스 리프팅실과 같은 ‘의료기기’와 ‘기능성 화장품’이 28% 비중으로 최 연구원은 추정했다.

지난해 한스바이오메드의 주력 분야인 인공보형물 매출액은 199억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글로벌 성형수술 가운데 유방확대술(17.6%)이 최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전방 시장도 크다.

최 연구원은 “세계 인공유방 보형물 시장은 약 1조2000억원 규모이고, 연평균 6% 성장하고 있다”며 “전방 시장확대에 따라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BellaGel)을 판매하고 있는 한스바이오메드의 실리콘폴리머 사업 또한 동반 성장에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벨라젤 3세대를 중심으로 해외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실적 향상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러시아와 코스타리카 등 국가에 벨라젤 3세대 제품 판매허가를 받았고, 올해는 브라질, 중국 등 5개 국가에도 판매허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FDA 임상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연구원은 “지난해 경쟁사 인공유방 보형물에서 희귀질환 발병 가능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한스바이오메드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8년 2세대 인공유방 보형물은 거친 표면의 텍스처 때문에 희귀질환 발병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점유율 감소가 시작됐다”면서 “3세

대 시장 점유율을 키우고 한스바이오메드에 반사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스바이오메드는 약 12조원 규모의 글로벌 인체조직재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아시아 최초 미국조직은행연합회(AATB) 가입 기관이고, 국내 1호 조직은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인체조직재 매출은 연평균 9% 성장해 왔다.

최 연구원은 “인체조직재 부문은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판매승인 받은 ‘익스퓨즈(ExFuse)’ 제품에 달렸다”면서 “현재 중국에 판매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스바이오메드와 미국 라이트 메디컬 그룹(Wright Medical Group)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스퓨즈’는 올해 초도 물량 수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인 매출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기기 부문은 리프팅실과 모발이식기 관련 매출로 구분된다. 이중 리프팅실은 지난해 수출매출이 56억원을 기록했고, 최근 3년 평균 178% 성장을 보였다. 올 하반기 신규라인 제품도 중국 허가를 앞두고 있어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리서치알은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 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2만9500원을 제시했다. 2020년 예상 주당순이익(EPS) 1180원에 주가수익비율(PER) 25배를 적용한 결과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GS건설, 한남 하이츠 재건축 청사진 공개

GS건설은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남하이츠를 “한남자이 더 리버”로 재건축해 한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GS건설은 8개동 총 535가구 규모의 한남하이츠를 지하 6층~지상 최고 20층의 아파트 10개동 총 790가구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 규모로 바꿀 예정이다. 한남자이 더 리버 조감도

/GS건설

## 대우·SK건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2월 분양

미니 신도시급 주택공급 예정지 3603가구 중 1795가구 일반분양

대우건설과 SK건설 컨소시엄이 오는 2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를 선보일 예정이다.

14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09-14 일원에 들어서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인근 재개발 사업지 중 최대 규모인 3603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52개동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별로 ▲59㎡A 234가구 ▲59㎡B 114가구 ▲59㎡C 35가구 ▲74㎡A 188가구 ▲74㎡B 383가구 ▲84㎡ 710가구 ▲99㎡ 105가구 ▲110㎡ 26가구 등 총 1795가

구가 일반분양 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매교역 일대는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중심지로 도시경비사업을 통해 약 1만2000가구 미니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예정됐다.

교통은 분당선 매교역이 근처에 있다. 수원역, 서수원 버스터미널과도 가깝다. 예비타당성 검토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준공을 앞둔 수인선(2020년 예정)과 트램(2023년 도입 추진), GTX-C노선(2024년 예정) 등이 조성되면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매교초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원중학교 및 수원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정영우 기자